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8. / (총 1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박 은 정	정	044-202-1711	전 화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김 정 일	한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안 광 찬	유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윤 덕 희	이	031-8008-5420		031-8008-5422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단 장	안 병 선	최	051-888-3330		051-888-3333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	팀 장	이 경 진	문	044-202-2023		044-202-2031			
경찰청 경비과	과 장	정 태 진	김	02-3150-2056		02-3150-2456			
중앙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팀	팀 장	김 한 숙	구	044-202-3860		044-202-3873			
보건복지부	과 장	서 일 환	김	044-202-3890		044-202-3891			
자살예방정책과	과 장	이 은 청	송	042-481-4408		042-481-459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 장	박 은 주	임	042-481-4534		042-481-456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과 장	임 영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부산), ▲추석 계기 방역 마음돌봄 심 프로젝트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부산), ▲추석 계기 방역 마음돌봄 심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며, 영업금지과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들께서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대신 쉽이 있는 연휴를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위험시설, 전통시장, 철도역사 등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9월 13일(일)부터 9월 26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71.6명으로 이전 2주간(8.30.~9.12.)의 130.5명에 비해 58.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9.9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30.~9.12.)의 46명에 비해 26.1명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1.5명으로 이전 2주간(8.30.~9.12.)의 176.5명에 비해 85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30일 ~ 9월 12일	9월 13일 ~ 9월 26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76.5명	91.5명
수도권	130.5명	71.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3.1명	12.9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44건	28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9.7% (522/2655)	21% (307/1461)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방문판매, 병원, 회사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1%이며,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의 잠복확인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 8월 16일부터 6주간의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 수도권은 일 평균 224.3명(8.16.~8.22.)에서 253.9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162.1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59.6명(9.20.~9.26.)이 발생하였다.
 - 비수도권은 44.1명(8.16.~8.22.)에서 77.1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56.3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16명(9.20.~9.26.)이 발생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16. ~ 8.22.	8.23. ~ 8.29.	8.30. ~ 9.5.	9.6. ~ 9.12.	9.13. ~ 9.19.	9.20. ~ 9.26.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68.4명	331.0명	218.4명	134.6명	107.4명	75.6명
수도권	224.3명	253.9명	162.1명	98.9명	83.7명	59.6명
비수도권	44.1명	77.1명	56.3명	35.7명	23.7명	16.0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0명	11.6명	11.6명	14.7명	12.3명	13.4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과 8월,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확산의 여파를 기억하시고,
 -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서 비대면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길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추석 연휴 동안 귀성, 여행을 가지 않는 시민들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8일(월)부터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한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자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 9월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한다.

-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개방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립박물관은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여 개방한다. 공공 도서관도 자료실을 일부 개방하고 추석 북데이 특화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인천가족공원의 방역을 강화하여 2시간 간격으로 실내 시설의 방역과 환기 실시, 성묘객 2m 거리 두기, 실내시설에서 일방통행,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경기도가 주말 동안 1,620개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종교계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대책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 지난 여름 선별진료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냉각조끼 등을 지급하였으며, 동절기에 대비하여 난방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자출입명부 또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 내일(9.29.)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QR코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최초 1회'로 간소화하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거부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3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 (부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부산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올 추석엔 안와도 된데이~” 등 연휴 기간 이동 최소화, 장소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메시지를 전파한다.

○ 다음으로 24시간 상황대응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및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37개소), 역학 조사반(18팀), 진단검사(2개소) 등을 가동하고, 격리시설과 병상 운영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 터미널, 역 등 주요 관문 시설에 열화상 감지기를 추가 배치하고 발열자 유무 등을 철저히 감시(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자가격리 전담반도 24시간 가동하여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 격리 여부를 점검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하여 구급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

○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6종*과 집합제한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유흥시설 5종) : 1주간 집합금지 (9.28.~10.4.)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주간 집합금지 (9.28.~10.11.)

-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내 봉안당 및 실외시설(묘지, 봉안묘)을 모두 임시 폐쇄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봉안당 추모객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여 다수의 밀집을 방지하고 있다.

○ 한편, 시립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 시, 구·군, 관광경찰대 합동으로 관광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9.21.~9.29.)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4 추석 계기 방역 마음돌봄 '쉽'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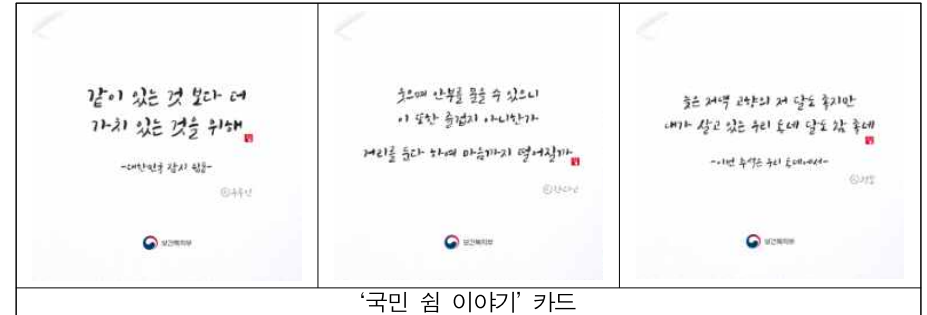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 계기 방역 마음돌봄 '쉽' 프로젝트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면서도 지친 마음을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쉽'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다양한 소통을 추진 중이다.

○ (추석 문예 '쉽' 백일장)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쉽'이라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쉽' 백일장 공모(9.16~9.22)를 통해, 총 513건(중복 제외, 총 524명 참여)의 작품(단편 시, 시조)을 접수하였다.

- 이 중 우수작 20개 작품을 선정(9.24 발표)하고, '국민 쉽 이야기' 카드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9월 25일(금)부터 소개(<https://bit.ly/3mQ7p6l>)하고 있다.

* <우수작 사례> (ID: 우아한늘보) 보고 싶은 마음은 더하고(+) 코로나의 위험은 빼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곱하여(x) 집콕 추석으로 안전하게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자(÷) (ID: 간다고) 웃으며 안부를 물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거리를 둔다하여 마음까지 떨어질까



'국민 쉽 이야기' 카드

○ (모바일용 '쉽' 프로필 이미지) 고향 방문도 '쉽', 대이동도 '쉽', 보름달도 '쉽' 등 다양한 '쉽' 메시지를 담은 총 11종 프로필 이미지(이미지 10종, 영상 1종)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또는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내 '쉽' 전용코너에서 무료 배포 중이다.

- 해당 카드는 모바일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이미지 이외에도 추석 인사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추석 마음 돌봄 '쉽' → '쉽' 프로필 이미지 다운로드 활용 가능



'쉽' 프로필 이미지

- (마음 '쉽' 라이브 방송)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 등을 함께 나눠보는 '코로나 우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라이브 방송(9.24 17시)을 진행하였다.
- 국민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현 전문의의 상담과 스트레스 극복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 유튜브 주소: <https://bit.ly/3cuGE0R> * 페이스북 주소: <https://bit.ly/3i2R0pV>



마음 '쉽' 라이브 방송

-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라디오 광고) 추석 연휴 기간 만남 자체 필요성을 흥미로운 소재로 구성*한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 편(40초 음성 광고)은 9월 29일(화)부터 10월 4일(일)까지 약 1주간 라디오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조부모님의 음성 편지 컨셉 활용 메시지 "우리는 암것도 필요 없다. 사랑한데이~" 등

- ('사랑한다면 쉽' 등 기획 영상) '쉽'에 관한 다양한 기획 영상을 보건복지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mohwpr>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ohwpr>

- 9월 17일(목)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쉽')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방심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영상('사랑한다면 쉽' 1편)을 공개하였고,

- 오늘(9.28)은 추석 '쉽'에 대한 어르신들의 진솔한 속마음을 들어보는 인터뷰 시리즈 영상('부모님 진짜 속마음', 5편)이 공개되며, 추석 당일(10.1.)에는 보고 싶은 가족에게 화상 전화로 마음을 전달하는 실험카메라 영상('랜선 진심', 1편)이 공개된다.



- 이 외에도 추석 방역수칙 안내 카드뉴스*(9.25), 추석 때 병원은 안 '쉽' 홈페이지 배너(9.30~)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동할 때 안 '쉽', 고향에서는 같이 먹기 '쉽', 성묘·봉안시설 방문 시 제례실 '쉽' 등 전달



추석 방역수칙 안내 카드뉴스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모두의 지친 마음과 몸에 쉽이 필요한 시기로 이번 명절에는 집 안에서 머물며 충분한 쉽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며,

- "지친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지내실 수 있도록 쉽 없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 개천절 집회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 한편,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
-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6 코로나19 자살 예방을 위한 1393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담인력 확충 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 (인입 건수, 월평균) '19년: 9,217건 → '20.1~8월: 16,457건(78.6% 증)
(평균 응대율) '19년: 64.0% → '20.1~8월: 36.6%(27.4% 감)
- 현재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42명의 인력**(4조 3교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1만 7천여건에 이르는 **전화상담을 응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자살상담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대책**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 첫째,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에서 단기적으로 상담 가능한 인력(12명)**을 오늘(9.28.)부터 파견하기로 하였다.

- 둘째, 상담 인원 중 결원 또는 휴직 인원은 신속히 신규 채용 (13명, 9.22. 공고)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늘어나는 자살위기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 상담전문교육 후 투입, 소정의 수당 지급 예정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통해 자살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후 상담사 정원을 확대하고 1393 상담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민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살상담 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살예방에 동참하고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상황

-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며,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한다.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음식점, 유흥주점 기준) 등 소상공인 요건만 충족하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신청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 한편,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②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신청은(재도전장려금.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원격수업이 계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7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비를 지원한다.

-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에게는 특별돌봄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15만 원을 지원한다.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등 기존의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추석 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7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5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93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27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70개소, ▲종교시설 1만4275개소, ▲노래연습장 580개소 등 41개 분야 총 2만2615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8건에 대해 현장 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6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4개반, 305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자의 전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결핵)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정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